

# 전남도, 대한민국 섬 발전 중심지 도약

###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이어

###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확정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주민 주도 섬 재생사업 성공 각광

전남도가 국립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정짓는 등 대한민국 섬 발전 정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국립 한국섬진흥원을 목포에 유치해 지속가능한 섬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8월에는 기재부로부터 세계 최초 섬박람회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섬 발전을 이끌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다.

오는 10월 초 개원 예정인 한국섬진흥원은 목포 삼학도에 기존 목포항운노조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영지원실 등 3실 35명으로 운영하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전국 3300여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관리를 담당하고, 통합적 대한민국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일찍부터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관련법 제정 제안 등 그동안 전남도의 노력과 정책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돼 유치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전남도는 정부가 2018년 한국섬진흥원 설립계획을 포함한 섬발전추진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인 2012년부터 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2016년에는 8월 8일을 세계 최초로 섬의 날로 제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2019년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 행사를 전남에서 개최해 섬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이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수 돌산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30개국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우리나라 3300여 섬 가운데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보고로, 지난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나서 현재까지 18개 섬을 선정한 바 있다. 여수 낭도 등 10개 섬이 개방돼 주민과 여행자가 공존하는 생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충남, 경남 등 타 시도에서도 전남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주민 주도형 섬 재생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섬 주민이 1000원만 부담하면 육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1000원 여객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오는 11월 5일까지 강진에 있는 귀어학교에서 5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해 문을 연 전남 귀어학교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기에 걸쳐 5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4기 졸업식.

## 성공적 어촌 정착, 전남 귀어학교서 배운다

### 해양수산과학원 어촌 밀착형 교육 11월 5일까지 20명 대상 5기 과정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 밀착형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성공적 귀어를 돕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강진에 있는 귀어학교에서 5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귀어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5주간 이뤄진다. 3주간 수산물 양식기술 등 이론교육과 2주간 어촌생활 밀착형 현장 견학 및 실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교육생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입소 전 PCR 진단검사 및 자체 방역 점검표를 통해 교육 중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전남 귀어학교는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 전국 세 번째로 지정받은 교육장이다. 지난해 6월 온라인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기에 걸쳐 5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지난해 수료생 36명 중 23명이 전남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1~4기 수료자 55명은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귀어학교 최종 수료 시 각종 수산 보조사업 신청·선정 평가에 우수 점수 혜택이 주어진다. 초기 어업 기반 조성을 원하는 귀어귀촌(창업) 예정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박준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귀어학교는 귀어를 바라는 분들에게 인생학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귀어 준비 및 적은 시간을 충분히 보내 전남지역 어촌정착의 시행착오를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목포·무안·신안·함평·영광·진도 어촌지도자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서부지역 어촌지도자 간담회'를 지난달 29일 열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수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주요 시책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어업인 지원 용자금 상환기간 연장(거치기간 포함) ▲대출 시 어업인의 불리한 규정 완화(담보 규정) ▲어업인 교육과정 확대(귀어교육 참가 기회) ▲어촌계 공동 어구 저장창고 설립 ▲어업인 상담소 확대 운영(기술보급 기능) 등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산 농업용 드론 성능 탁월 5개 생산업체 참여 제품 품평회

전남도가 지난 29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농업용 드론 품평회를 개최했다.

영암 삼호읍 소재 (주)나라항공기술 드론 교육장에서 열린 행사는 도내 농업용 드론 생산 기업과 시·군 공무원 및 농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나라항공기술, (주)스카이뷰, (주)에스엠소프트, 에이에프아이(주), (주)천풍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살포 시연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자인 농업인이 직접 조작을 해보고 성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8대, 올해는 92대를 지원했다.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트리플 인공재배 연구 한창

### 정부 공모 선정 산학연 공동 연구 국내 자생 20종 접종묘 생산 성공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국내 최초로 트리플(서양송이버섯) 인공재배 연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도 트리플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접종묘 생산에도 노력중이다.

트리플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귀하고, 특이한 향미를 가진 고급버섯으로 캐비어, 프야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힌다.

트리플 인공재배 연구는 농식품부 연구개발(R&D)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10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받아 산·학·연 공동으로

하고 있다. 전남지역 산림버섯 재배농가의 미래 소득작목 발굴로 임가소득 증대 및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연구팀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주관기관으로 오찬진 산림바이오과장이 총괄한다. 협동연구기관은 국내 균근성버섯 연구 분야 권위자인 한국교원대학교 임안홍 교수팀, 한국농수산대 서건식 교수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김경제 박사팀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활용해 국내 산림 토양에서 서식하는 트리플 균주를 과학적 기법으로 찾아내고, 균 분리를 통해 자생수종 활용 접종묘 생산연구와 현장실증 재배시험을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포함 국내 20여 곳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부근의 기주식물 뿌리

를 DNA 분석 등을 통해 정밀진단한 결과 외생균근 형태로 5종의 트리플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어 자생지역을 대상으로 트리플 발생 시기인 8~11월 자실체 발생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세계 신종(가칭 Tuber koreanum.) 1종을 포함해 총 3종의 트리플 자실체를 찾아냈다. 이 트리플의 형태적 특성 및 발생 양상에 대해 한국균학회지 등 국내 학술지에 논문 3편을 게재하고, 포스터논문 5편을 발표했다.

발견한 트리플 자실체를 활용해 자생수종인 상수리 등 참나무류의 접종묘 생산에 성공, 현재 지속해서 순화재배 관리 중이며 실증재배시험을 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농수특산물 전남도지사품질인증 30일 단축

전남도가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업체가 품목을 추가 인증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30일 단축하기로 했다.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농산물을 추가 인증 시 동일한 중복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최근 개정해 처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이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와 현장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서류, 현장 평가로 축소한 결과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도 기존 매년 5월과 10월로 한정했으나, 수시로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417개 인증업체가 신규 제품 등을 추가 개발하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도지사품질인증 사용허가 업체에 1000만원의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225만원의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며,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 우선 입점 혜택을 준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많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우테크노리온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